

肝癌痛症의 韓方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金熙哲* · 金演鎮** · 趙鍾寬*

I. 緒 論

癌性痛症은 腫瘍의 壓迫으로 말미암아 有關 組織의 神經 및 正常組織을 侵犯, 壓迫함으로 發生하는데 臨床症狀이 出現部位에 따라 比較的 複雜하며, 大部分 癌症의 初期에는 明顯치 않고, 中末期에 腫瘤가 增殖되어 나타나며, 疼痛은 腫瘤의 部位와 增殖速度에 따라 決定된다¹⁾.

現代醫學의 癌性疼痛에 대한 治療方法은 局部治療, 鎮痛劑 및 疼痛의 傳達路를 遮斷하는 方法이 있으나, 惡心·嘔吐를 비롯하여 骨髓抑制效果와 肝, 心, 腎, 肺의 損傷을 招來하고, 특히 癌細胞의 藥劑抵抗性 出現등이 問題點으로 提示되고 있는 實情이다¹⁻³⁾.

肝癌疼痛은 韓醫學에서 脾積, 癥積, 脇痛, 鼓脹, 蟲門, 積聚, 黃疸등의 範疇와 자못 關聯이 있다^{4,5)}. 《內經》⁶⁾에서는 “肝病者, 兩脇下痛引少腹, 令人善怒”라 하여, 肝의 痛症 부위가 脇下라는 것을 처음으로 提示한 以後 《難經》⁷⁾에서 “脾之積, 名曰痞氣, 在胃脘, 復大如盤, 九不愈, 令人四肢不收, 發黃疸, 飲食不爲肌膚.”라 하였고, 宋代의 《聖濟總錄》⁸⁾에서는 “積氣在腹中, 久不差, 堅固推之不移者, 癥也, ……飲食不消, 按之其狀如杯盤堅結, 久不已, 令人身瘦而腹大, 至死不消.”라 하였고, 明의 李梴은 《醫學入門》⁹⁾에서 “脾積, 胃脘稍右曰痞氣, 言陽氣爲濕所困也, 令人黃疸倦怠, 飲食不爲肌膚.”라 하였다.

現代에 癌瘤 疼痛의 豫防과 治療는 癌治療에 있어서 重要的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데 許德甫²⁾의 〈中西醫結合治療常見腫瘤的良方妙法〉와 陳瑞東¹⁰⁾의 〈對癌症有效的中藥方劑〉, 李岩¹¹⁾의 〈腫瘤

臨證備要〉, 鄭玉玲의 〈實用中西醫腫瘤內科治療手冊〉¹²⁾과 〈癌痛的中西醫最新療法〉¹³⁾, 洪元植¹⁴⁾의 〈現代中共의 癌治療〉등이 著述되었다.

그러나 아직 肝癌으로 因한 痛症에 대해서는 아직 未洽한 段階에 있어, 現在 發表된 資料와 歷代 文獻을 考察하였던 바 약간의 智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病 因

韓醫學에서는 外로는 寒氣, 濕邪, 濕熱 및 虛邪 등의 邪氣가 人體에 侵襲하고 거기에 飲食不節로 因하여 脾胃가 損傷되었을 때 發生하거나, 或은 情志抑鬱로 因하여 肝氣가 鬱結되고 氣滯血瘀케 되어 멎쳐서 오래되어 積을 이룬 것이다^{4,5)}. 《靈樞·百病始生篇》¹⁵⁾에 “風雨寒熱, 不得虛, 邪不能獨傷人.” “虛邪之中人也, 始於皮膚…留而不去, 傳舍於腸胃之外, 募原之間, 留著於脈, 稽留而不去, 息而成積.” “溫氣不行, 凝血蘊裏而不散, 津液澁滲, 著而不去, 而積皆成矣.”이라 하였다. 또한, “積之始生, 得寒乃生, 厥乃成積也.”이라 했는데, 이는 內因으로 臟腑氣虛血虧, 脾虛濕困, 氣滯血瘀등이 있고 外因으로 六淫邪毒入侵, 虛邪中人, 邪凝毒結등으로 오래되어 積을 이룬 것이다.

2. 病 理

1) 氣機失調

各種 病因은 모두 氣機失調를 誘發시킴으로 腫塊를 形成할 수 있다. 腫塊가 일단 생기면 그 腫塊는 점차 臟腑經絡을 阻滯시켜 2次的으로 各種 氣機失調를 일으킨다¹⁶⁾. 《醫宗金鑑》¹⁷⁾에서는 腹部結塊에 “七癥八瘕 氣血凝”이라 하여 肝癌疼痛의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敎室

** 大田大學校 附屬韓方病院

病因病機중 하나가 氣機失調라고 하였다.

2) 瘀血阻滯

瘀血은 人體의 病理의 産物에 속한다. 血行不暢은 腫瘍이 만들어 내는 病理 基礎중의 하나이고, 腫瘍의 病理는 大部分 血瘀에 속한다. 즉 瘀血阻滯 역시 疼痛의 主要 原因중의 하나가 된다¹⁶⁾. 《內經》⁶⁾에서는 “血泣不得注于大經, 血氣稽留而不得行, 故宿昔而成積聚”라 하여 血行不暢이 癌形成 病機중의 하나라고 하였고, 清代 王清任¹⁸⁾은 “結塊者, 必有刑之血也. 血受寒即凝結成塊, 血受熱則煎熬成塊”라 하여 腫塊의 病理가 瘀血임을 말하고 있다.

3) 痰癥積結

痰은 津液의 運行이 失常하여 凝結하여 생긴다. 痰癥 역시 癌이 生産하는 病理 基礎의 하나이다. 元代 朱丹溪¹⁹⁾는 “凡人身上中下有塊者多是痰, 痰之爲物, 隨氣機升降, 無處不到”라고 한 것은 痰이 腫塊의 實質의인 病理中의 하나임을 說明하는 것이다. 痰邪는 또한 經絡氣血을 阻滯시켜 臟腑 經絡 氣血失調 및 疼痛을 誘發한다. 痰邪는 또한 氣滯, 血瘀, 濕邪, 火毒과 相互 結合하여 病이 되는데 痰氣交阻, 痰瘀互結, 痰濕夢閉, 痰火上逆 等症을 나타낸다¹⁶⁾.

4) 濕邪內阻

濕邪는 內外로 나눌수 있는데 外로는 氣候燥濕으로 말미암고, 內로는 脾失健運이 原因이다. 그의 氣滯血瘀, 癌瘤阻滯 역시 濕邪內阻에 이를 수 있다¹⁶⁾.

5) 毒火結聚

毒과 火는 同屬으로 毒火는 밖으로 부터 侵入하기도 하고 안에서 생길 수도 있다. 毒火가 안에 있으면 臟腑經絡氣血을 損傷시키고 氣血痰濁과 相合하여 癌瘤를 만들고 또한 毒火도 직접 絡을 傷하여 極烈한 疼痛을 야기시킨다¹⁶⁾. 《諸病源候論》²⁰⁾에서 “惡核者…此風邪挾毒所成”라고 한 것은 體表 혹은 腹腔內 惡性腫核과 外感의 毒邪가 有關함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氣鬱停滯, 積結成癥, 因熱氣相搏, 即 鬱蒸不散, 故脇下滿痛”이라고 한것은 脇下堅癥疼痛의 病機는 熱氣相搏, 鬱蒸不散임을 說明하는 것이다.

6) 虛衰失調

機體虛衰失調하면 正氣가 邪氣를 이기지 못하므로 邪氣가 留滯하여 不去 하므로 오랜 時間이 지나면 癌瘤가 된다. 癌瘤가 생긴 후 점점 커지게 되면 臟腑를 傷하고, 經絡氣血을 阻滯시켜 各種 虛衰症狀들이 나타나고 體重減少와 疼痛이 날로 增加한다¹⁶⁾.

3. 肝癌痛의 診斷要點

1) 肝癌痛의 特徵: 肝癌早期에는 明確한 症狀이 없다. 다만 小數에서만 右上腹部 또는 上腹部에 間歇的인 痛症이 있어, 飲食이나 睡眠등 日常生活에 전혀 影響이 없어 誤診에 이르기 쉽다. 癌腫이 進行하면 肝部位에 持續的인 疼痛이 있다. 腫瘍가 肝右葉上方에 있으면 橫膈膜을 侵犯하여 疼痛이 右肩이나 右背로 放散된다²¹⁾. 腫瘍가 右葉後方に 있으면 腰部疼痛을 일으킨다. 肝癌疼痛의 性質은 多樣하여 刺痛 脹痛, 鈍痛과 夜間에 더욱 심해져 一般 止痛劑로는 緩解가 어렵다^{2,22)}. 만약 癌腫이 急速하게 生長하면 癌結節이 肝細胞膜 破裂을 일으켜 出血을 發生케 하거나 肝破裂을 發生시키면, 참기 힘든 極烈한 疼痛과 同時에 血壓下降을 가져오고 面色蒼白, 汗出肢冷등의 症狀이 나타난다¹²⁾.

2) 隨伴症狀^{2,11,12,21)}

(1) 腹脹: 肝癌의 全病症에 걸쳐서 均一하게 腹脹이 發生하는데 肝左葉에의 癌腫에서는 腹脹이 早期에 또는 重한 形態로 發生하고 肝右葉의 癌腫에 있어서는 比較的 緩慢하고 輕한 形態로 發生한다. 腹水の 存在는 腹脹을 惹起시키며 大量의 腹水는 全腹部의 腹脹을 惹起시킨다.

(2) 納呆食少: 絶對多數의 肝癌患者들에게서 食欲不振 消化不良, 食後腹脹이 나타나고, 一部分의 患者에서 頑固한 惡心, 嘔吐, 腹瀉이 나타난다. 腹瀉에는 腹痛이 거의 隨伴되지 아니하며, 食後에 바로 泄瀉하고, 排出된 것은 消化가 거의 되지않은 찌꺼기이고, 膿血은 없고, 抗菌藥物治療에도 效果가 없다.

(3) 倦怠乏力: 大多數의 肝癌患者들에게서 倦怠乏力이 나타나고 中期나 末期에서는 明顯하며, 아울러 全身消瘦와 面色晦暗汎清을 同伴한다.

3) 體症^{2,4,11,21)}

(1) 肝腫大 : 90%以上の 肝癌患者에게서 進行性의 肝腫大와 肝硬變, 表面의 凹凸不平, 大小不同한 結節狀 혹은 巨塊狀이 나타난다. 癌腫이 肝右葉에서 橫膈膜과 接해 있으면 肝濁音係의 明顯한 上升이 나타나고 觸診시 많은 壓痛이 나타난다.

(2) 腹水 : 肝癌이 發展하여 中期末期에 이르러서는 肝癌患者의 43%에서 腹水가 나타나고 있으며 腹水는 草黃色이나 血性을 나타나고 있고, 積聚가 急速하여, 利尿劑로 除去하기가 容易하지 않다.

(3) 黃疸 : 患者의 33%程度가 病이 進行하는 過程中에 出現한다. 初期에는 比較的 輕하나 病程의 進展과 進行性에 따라서 심해진다.

(4) 脾腫大 : 약 38%의 患者에서 脾腫大와 硬結 表面光滑이 나타나고 一般의인 壓痛은 없다.

4. 鑒別診斷

現代醫學에서 肝部位에 疼痛의 發生하는 것은 여러 病變에서 나타난다. 특히 肝癌疼痛은 肝硬化나 肝膿腫과는 區別을 하여야 한다⁴⁾. 肝硬變은 肝炎과 慢性肝炎으로부터 發展하여 肝部位에 隱痛이 있고 不快하며 惡心乾嘔 納呆食少, 腹脹腹瀉, 때때로 腹水가 出現한다. 早期에는 肝臟腫大 表面光滑하고 末期에는 肝臟縮小, 硬結하고 結節狀이며 一般의로 壓痛이 없다. 肝膿腫은 發病時 寒戰과 高熱, 肝部位의 持續性疼痛이 加重되고 膿腫이 破壞되어 腹腔에 出現하면 全腹疼痛이 나타나고 小數에서 黃疸이 나타난다. 肝臟腫大는 圓形을 나타내고 質은 比較的 軟하며 觸診時 波動感이 있으며 表面은 光滑하고 結節이 없으며 壓痛이 있으며, 患處皮膚에는 水腫이 있다¹³⁾.

韓醫學에서 肝癌疼痛의 鑒別診斷은 正氣와 邪氣를 辨別하여 治療의 攻補先後와 主次를 決定해야 한다. 이는 肝癌疼痛의 特徵이 正虛邪實이므로 正氣虛는 肝癌疼痛 發生의 첫번째 要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肝癌疼痛은 大部分 癌의 末期에 나타나는데 邪氣는 未去하면서 正氣는 날로 虛損해짐으로 虛實 勢力의 比率을 優先의로 辨別하여 先攻後補, 先補後攻, 攻補兼施를 決定해야 한다. 攻

補兼施를 해야 할 때는 正邪의 勢力比率에 根據하여 攻補의 程度를 決定해야 한다. 그러므로 肝癌疼痛의 辨證論治에서는 虛實情況을 분명히 辨別하는 것이 治療의 關鍵이다²³⁾.

肝癌疼痛의 特徵은 비록 共通點이 있더라도 病邪가 틀리므로 各各의 差異點이 있다. 예를들면 氣滯로 인한 疼痛은 脹痛하는데 情志不暢하면 더 심해지고 脈弦하다. 血瘀로 인한 疼痛은 刺痛인데 아울러 舌質에 瘀血斑點이 나타나고 脈澀하다. 痰濕凝滯로 인한 疼痛은 鈍痛이며 昏蒙 吐痰涎 等症을 隨伴할 수 있다. 火毒으로 인한 疼痛은 熾熱疼痛으로 高熱 煩渴 혹은 局部紅腫灼熱을 同時에 隨伴할 수 있다¹¹⁾.

5. 辨證論治

(1) 肝氣鬱結症^{11,13)}

症狀: 右脇部 脹痛, 胸膈滿悶, 情緒抑鬱, 生氣後 疼痛加重, 納呆食少, 噯氣頻頻, 喜歎息, 右脇下腫塊 觸之, 舌苔薄白, 兩脈弦.

治法: 疏肝解鬱, 利氣止痛

方藥: 柴胡疏肝散加味 柴胡 12g, 陳皮 9g, 赤芍 15g, 枳殼 12g, 川芎 9g, 香附 12g, 炙甘草 6g, 鬱金 10g, 八月札^{1*)} 30g를 使用한다. 枳殼은 疏肝行氣의 主이며 川芎, 降香은 活血行氣의 輔이며 白芍은 柔肝和血 沙苑子는 滋陰養肝의 佐이고 甘草는 諸藥을 調和시키는 使이다. 이 方은 公히 疏肝解鬱 利氣止痛의 功效가 있다. 만약 腹脹이 심하면 羅蔔子 30g, 川朴 12g 大便乾結하면 大黃 6g, 芒硝 15g, 火麻仁 12g를 發熱口苦, 心煩易怒하면 梔子 12g, 龍膽草 15g, 青黛12g을 使用한다.

(2) 瘀血內阻症^{11,13)}

症狀: 右脇下刺痛, 痛處固定不移, 때때로 腰背部 放散痛, 夜間疼痛極烈, 腹部青筋暴露, 脇下腫塊增大, 硬結, 壓痛, 舌質紫暗, 瘀點, 瘀斑, 舌下靜脈怒脹하고 色은 紫黑, 脈沈細或 澀.

治法: 活血化瘀, 消積止痛

方藥: 膈下逐瘀湯 川芎 9g, 赤芍 30g, 五靈脂 12g, 桃仁 12g, 丹皮 12g, 烏藥 15g, 元胡 15g, 香

1 *. 八月札: 性寒 無毒 主胃口熱閉, 反胃不下食

附 12g, 紅花 10g, 枳殼 15g, 甘草 6g을 使用한다. 方中の 赤芍, 川芎, 桃仁, 紅花는 活血化瘀의 主藥이다. 當歸는 補血活血하고 烏藥, 枳殼은 利氣解鬱 香附는 行血中の 氣藥으로 輔藥이다. 丹皮는 清熱 活瘀하고 五靈脂, 元胡은 活血止痛의 佐藥이고, 甘草는 諸藥을 調和시키는 使藥이다. 이 方은 오로지 活血化瘀 消積止痛의 效能이 있다. 만약 脇下 腫塊가 돌과 같이 단단하면 三稜 15g, 蓬朮 15g, 地鱉蟲 15g, 水蛭 15g을 加하고 發熱口苦, 全身黃色이면 龍膽草 30g, 茵陳 30g, 草河車 30g을 加味하고 齒齦, 口鼻出血, 便黑者는 白茅根 60g, 鮮側 栝葉 30g, 生大黃粉 3g, 仙鶴草 33g을 加味한다.

(3) 濕瘀互結症¹³⁾

症狀: 右脇下刺痛, 全身黃色, 小便短小而深黃, 發熱口苦, 腹部膨隆脹大, 腹部青筋暴露, 納呆食少, 惡心乾嘔, 舌質暗, 舌下脈色紫黑, 怒脹, 苔黃, 脈沈滑.

治法: 利濕化瘀, 散結止痛

方藥: 茵陳蒿湯合 失笑散加味 茵陳 30g, 梔子 12g, 大黃 6g, 五靈脂 15g, 蒲黃 15g, 龍膽草 30g, 紫河車 30g, 柴胡 15g, 大腹皮 30g, 虎杖根 15g, 元胡 15g, 生薏仁 30g, 羅蔔子 30g을 使用한다. 모두 清熱利濕, 活血化瘀 散結止痛의 效能을 나탄낸다. 만약 惡心嘔吐에는 竹茹 30g, 川朴花 15g, 旋覆花 15g을 加味하고 腹水가 심한 사람은 豬苓 30g, 車前子 30g, 商陸 6g을 加味하고 腹瀉便溏한 사람에게는 白扁豆炒 30g, 茯苓 15g, 葛根 12g을 加味한다.

(4) 肝腎陰虛 濕瘀互結症¹³⁾

症狀: 兩脇持續性疼痛, 低熱盜汗, 惡心煩熱, 納呆食少, 乏力消瘦, 頭暈目眩, 腹脹如鼓, 小便不實, 小便短小, 腹部青筋暴露, 嘔血, 便血, 舌紅無苔花剝苔, 脈沈細數.

治法: 滋腎養肝, 利濕化瘀, 散結止痛

方藥: 二至丸 및 青蒿鱉甲湯加減 女貞子 30g, 旱蓮草 15g, 生鱉甲 30g, 生龜板 15g, 丹皮 12g, 地骨皮 12g, 青蒿 30g, 當歸 15g, 白芍 15g, 車前子 30g, 茯苓皮 30g, 白花蛇舌草 30g, 赤芍 30g, 元胡 15g, 白茅根 60g을 使用한다. 이 藥은 滋補肝腎, 利濕化瘀, 散結止痛의 效能이 있다. 惡心嘔吐에는 竹茹 30g을 加味하고 出血에는 仙鶴草 30g,

三七粉 6g, 大黃粉 6g을 加味한다.

6. 治療

(1) 針刺止痛法: 主血은 肝炎點, 足三里를 配穴은 陽陵泉, 期門, 章門, 三陰交를 刺鍼하는데 一般的으로는 단지 1개의 主血을 使用하고 肝炎點을 除外하고 足三里, 陽陵泉, 三陰交는 兩側取穴하고, 章門, 期門은 局部取穴하며, 每 2-3개월간 使用한다. 針은 緩慢하게 進入시키며 肝部位에서는 深刺를 하지 않고 提插補瀉를 하지 않는다. 留鍼은 30분하며 每5-10分 間隔으로 鍼柄을 進展시키며, 또한 長時間 留鍼시키는 것도 좋으나, 折針되는 것을 注意하여야 한다. 매일 1-2차 鍼刺하며, 당일 2차 鍼刺시 前穴을 使用해서는 안된다. 一般的으로 刺針後에 疼痛이 점차 줄어들고 止痛持續 時間도 늘고 再發疼痛時에 鍼刺止痛 效果도 良好하며, 留鍼時間이 길었을 때도 止痛效果 역시 良好하였다.^{13,14)}

(2) 穴位敷藥止痛法 癌痛散: 山查 20g, 乳香 20g, 沒藥 20g, 大黃 20g, 薑黃 20g, 梔子 20g, 白芷 20g, 黃芩 20g, 小茴香 20g, 丁香 15g, 赤芍 15g, 木香 15g, 黃柏 15g, 麻子仁 15粒을 계란 흰자와 均一하게 調和시켜서 期門穴에 外敷하고 가끔씩 藥을 갈아준다¹²⁾.

(3) 韓藥敷臍止痛法 ① 香甲止痛散: 穿山甲末 100g, 乳香 20g, 沒藥 20g, 鷄矢藤揮發油 0.5cc, 冰片조금 ② 田螺^{24)*2)}: 田螺肉 10g, 鮮七葉一枝花 30g을 함께 찌어서 冰片 1g을 加한다¹²⁾.

(4) 肝區塗擦止痛法: ① 冰砂止痛液: 朱砂 15g, 乳香 15g, 沒藥 15g, 冰片 30g을 使用하는데 一般的으로 用藥後 10-15분에 疼痛이 消失된다. ② 冰片酒: 冰片, 白酒 適當量을 使用하는데 10-15分 후 에 疼痛이 緩和되거나 점차 消失된다^{2,12)}.

(5) 韓藥外敷肝區止痛法^{2,13,22)}: ① 明黃止痛散: 青黛 60g, 雄黃 60g, 明礬 60g, 皮硝 60g, 冰片 10g, 血竭 30g을 公히 細末하여 每차 30-60g을 醋나 豬膽汁에 버무려서 疼痛處에 毎日 1차례에 外敷하면

2. *. 田螺: 氣味甘 大寒 無毒 主治目熱赤痛 止渴 去腹中結熱 小腹急硬...

肝癌疼痛에 比較의 良好한 效果가 있다. ② 活癩蛤莫1只(去內臟) 雄黃30g을 肝區疼痛의 明顯한 部位에 벼무려서 外敷하면, 15-20분후에 鎮痛作用이 나타난다. ③ 新鮮한 喜樹葉 適當量에 食鹽을 適當히 벼무려 肝區에 外敷하면 比較의 良好한 止痛作用이 있다. ④ 活癩蛤莫皮의 皮膚突起組織을 自罷하여 肝區疼痛處에 外敷하면 肝癌疼痛에 比較의 良好한 效果가 나타난다. 1일 1차례씩 交換한다. 蟾酥로 因한 皮膚紅斑水泡는 藥을 中止한 후 수일 후 消失된다. ⑤ 香薷子酒: 薷子(水紅花子) 60g, 阿魏, 急性子, 大黃各 15g, 麝香 1.5g, 甘藜 9g, 白酒 500g을 細末하여 돼지방광에 納入한 후 疼痛處에 外敷한다.

(6) 單味 韓藥 止痛法^{12,13,22)}

① 單味鼠婦止痛: 乾燥한 鼠婦60g을 물을 適當量 加하여 2차례 끓여서 240cc를 取하여 煎후 끓인 藥을 混合하여 1일 4차례 分服하며 服藥期間中에 산 날식물을 금한다. 短期間에 基本的으로 또는 完全한 止痛의 目的에 使用한다. ② 單味雷公藤止痛: 雷公藤³⁾²⁵⁾의 根을 取하여 每15-21g을 넣어서 끓여서 300cc를 달여 매일 2차례 나누어서 服用하는데 10일을 1료정으로 한다. 服用후 效果가 빠른 사람은 20분 후이고 느린 사람은 30-60분 정도이다. 副作用은 輕度の 腹脹 口唇疱疹 腹瀉등이다. 本藥은 毒性이 있어 大劑를 使用하는 것은 不可하며 使用方法에 注意하여야 한다. ③ 單味仙鶴草止痛: 仙鶴草 120g을 水煎服하는데 1일에 6차례 分服한다.

7. 處方^{2,12,13,22,25)}

(1) 化征回生丹: 主要藥物은 麝香, 片薑黃, 花椒炭, 蠍蟲, 三稜, 紅花, 五靈脂, 蒲黃炭, 降眞香, 乳香, 沒藥, 桃仁, 川芎, 大黃, 繁甲, 兩頭尖⁴⁾²⁵⁾, 丁香, 香附, 水蛭, 人蔘, 當歸, 白芍, 熟地이다. 이 藥은 活血化癥 理氣止痛의 效能이 있다. 肝癌患者에 右脇下刺痛, 痛有定處, 腫塊硬堅, 乏力消瘦, 舌暗有瘀點瘀斑, 脈沈澁하여 辨症컨대 瘀血內阻하고 氣血兩虛한 者에 자못 마땅하다. 本 藥은 蜜丸劑이

다. 每丸의 重量은 6g이다. 每회 1환씩 매일 2환을 服用한다. 空腹에 溫水또는 黃酒로 服用한다.

(2) 一粒止痛丸: 方中の 披麻草는 破血散瘀止痛의 主藥이고 獨丁子는 活血散瘀消腫, 沒藥은 活血行氣止痛의 輔藥이다. 麝香은 辛香走竄하고 아울러 化癥藥과 더불어 活血止痛의 效能을 增強시킨다. 이 方은 活血化癥 行氣止痛의 效能이 있다. 瘀血內阻症의 肝癌痛에 比較의 適當하고 肝區疼痛이 椎刺와 같고 結塊가 돌과 같이 堅結하고 推之不移하고 舌暗하고 瘀點이 있고 脈細澁한데 使用된다. 本 藥은 水丸이다. 每10립 1.6g이다. 每회10립씩 매일 3립을 服用한다. 或은 疼痛시 1립을 服用한다. 妊産婦는 禁忌한다.

(3) 人蔘繁甲煎丸: 主要 藥物은 繁甲, 地蠶蟲, 桃仁, 露蜂房, 鼠婦, 厚朴, 法半夏, 黃芩등이다. 이 藥은 活血消痰, 散結止痛의 效能이 있다. 痰結互結에 陰虛內熱에 치우친 肝癌痛에 자못 適當하다. 右脇下持續性鈍痛, 肝脾腫大가 돌과 같이 硬堅하고 納呆食少, 低熱口乾, 惡心煩熱, 舌質暗苔厚膩, 脈滑或은 沈澁한 症에 使用한다. 本 若은 小粒蜜丸劑로 使用되는데 每회6-9g을 服用하고 매일 2회 服用한다. 大粒蜜丸은 每丸3g인데 每회 2-3환을 服用하고 매일 2회 服用한다.

(4) 大黃蠍蟲丸: 藥物組成은 熟大黃, 土蠶蟲, 水蛭, 鱗鱉, 蛇蟲, 乾漆, 杏仁, 黃芩, 生地黄, 白芍藥, 甘草이다 이 藥은 破血消征, 逐瘀通經, 養血清熱의 效能이 있다. 瘀血內阻에 血虛內熱의 肝癌痛에 比較의 適當하다. 右脇下刺痛, 痛處固定下移, 腫塊硬見如石, 面色暗黑, 頭暈乏力, 肌膚甲錯, 身體羸瘦, 低熱口乾, 舌暗有瘀點, 脈細澁에 使用한다. 本 藥은 蜜丸劑로서 每丸의 重量은 3g이고 每회 1환을 服用하고 매일 3회 服用한다. 妊産婦는 禁忌한다.

(5) 復方紫蔘衝劑: 方中の 石見穿⁵⁾²⁵⁾은 活血清熱하는 君藥이고 丹蔘, 鷄血藤⁶⁾²⁵⁾, 當歸, 紅花는 活血化癥하는 臣藥이고 香附, 鬱金은 疏肝解鬱한 佐藥이고 繁甲은 軟緊散結 消其積塊하는 使藥이

4 *. 兩頭尖: 性熱 味辛 療風濕 消癰腫

5 *. 石見穿: 性味 苦辛平 治噎膈

6 *. 鷄血藤: 性味 苦澁 香 味甘 去瘀血 生新血

3 *. 雷公藤: 味苦 大毒 殺菌 消炎 解毒

다. 이 藥은 行氣活血, 散結止痛시키는 效能이 있다. 肝癌痛에 있어서 氣滯血瘀인 자에 比較的 마땅하다. 본 藥은 沖劑로서 22g이 1회 用量으로 매일 3회 服用한다. 妊産婦는 禁忌한다.

(6) 外敷癌痛散: 藥物組成은 山査, 乳香, 沒藥, 大黃, 姜黃, 梔子, 白芷, 黃芩 各 20g, 小茴香, 公丁香, 赤芍藥, 木香, 黃栢 各 15g, 蓖麻仁 20粒. 上述된 藥을 가루내어 鷄卵흰자에 適當量 混合하여 잘 저어서 풀같이 만들어 肝癌患者의 期門穴에 붙인다. 藥을 꺼즈나 파라핀지에 개서 붙인후 접착 테이프로 固定시킨다. 疼痛이 極烈한 者는 6時間 마다 交換해 주고 疼痛이 輕微한 者는 12시간 마다 交換한다. 疼痛이 緩和 或은 消失될 때까지 계속 使用한다. 方中の 黃芩, 黃栢, 大黃, 梔子는 清熱解毒, 消炎止痛하고 山査, 小茴香, 公丁香, 木香은 芳香走竄, 理氣散結止痛하며 乳香, 沒藥, 赤芍藥, 姜黃, 白芷는 活血祛瘀, 消腫止痛하고 蓖麻仁은 拔毒消腫止痛의 效를 가지고 있으며 大量的 脂肪酸을 含有하고 있어 賦刑劑의 常用之品이 되고 外科의 要約이 된다. 綜合的으로 볼때 이 方은 清熱解毒, 消腫止痛에 더욱 效能이 있다. 한편 有效한 經穴을 선택하여 止痛의 效果를 높일 수 있다.

(7) 蟾蜍止痛方: 藥物組成은 살아 있는 蟾蜍 약간으로, 살아 있는 큰 蟾蜍 한마리를 잡아 껍질을 벗긴 후 깨끗한 물로 汚物을 씻어낸다. 그 다음 患者가 느끼는 가장 아픈 곳의 皮膚를 溫水나 알코올을 利用하여 깨끗이 닦아낸 후 蟾蜍皮를 이곳에 붙이고 꺼즈로 덮고 固定시킨다. 蟾蜍皮가 마르면 매일 新鮮한 蟾蜍로 3-4차례 或은 2-3차례 交換해 준다. 時間에 制限됨이 없이, 疼痛이 發生하면 즉시 붙이고 마르면 다시 交換한다.

(8) 肝癌止痛方: 藥物組成은 龍腦香 15g, 白酒 適當量으로 龍腦香을 白酒中에 넣고 溶解시켜 使用한다. 必要時에 면봉으로 자주 活用하고 있는데 藥을 묻혀 疼痛部位에 발라주면 약 10-15분지나서 效果가 나타난다. 龍腦香과 白酒는 芳香性을 갖는 藥性을 갖고 있으므로, 開鬱散結하여 鎮痛의 效果를 일으킬 수 있다.

(9) 如意金黃散: 藥物組成은 大黃, 黃栢, 姜黃, 皮硝, 芙蓉葉 各 50g, 龍腦香, 生南星, 乳香, 沒藥

各 20g, 雄黃 30g, 天花粉 100g을 가루로 만들어 놓는다. 治療時에는 가루에 엿을 넣어 된풀같이 되게 한후 기름떡인 종이위에 펼쳐 놓고 두께는 3-5 mm정도, 넓이는 대충 腫塊크기만큼 되게하여 肝部位 腫塊 윗부분이나 疼痛處에 붙인다. 隔日에 한 차례씩 交換하는데 두차례 施行하는 것을 1次 治療期間으로 한다. 藥을 붙이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鎮痛 藥의 使用을 中止한다. 藥을 붙인 후 皮膚에 丘疹 或은 瘡疹이 나타나면 붙이는 것을 잠시 中止해야 하며, 皮膚가 正常으로 回復되면 다시 붙인다. 方中에 大黃, 黃栢, 芙蓉葉, 天花粉은 清熱瀉火하고, 姜黃, 沒藥, 乳香은 活血止痛하며, 生南星, 皮硝는 軟堅散結하고, 龍腦香은 散鬱火하며 鎮痛하고, 雄黃은 解毒하므로 全體的으로는 清熱瀉火, 解毒消腫, 活血止痛, 軟堅消症의 效能이 있다.

(10) 鼠婦止痛方: 藥物組成은 : 말린 쥐며느리 (절족동물) 60g을 물에 두차례 다려 240ml를 취하여 매일 네차례로 나누어 60ml씩 먹는다. 服藥中에는 신음식, 매운 음식을 피한다.

(11) 驚莧外敷劑: 藥物組成은 살아 있는 자라 머리 2具, 新鮮한 莧菜 150(마른 것은 90)g, 水紅花籽⁷⁾ 90g으로 우선 자라 머리를 덩어리로 粉碎한 후에 깨끗한 석판위에 놓고 작은 망치를 利用하여 두들겨 진흙처럼 되면 다시 炭莧菜와 水紅花籽를 넣고 역시 진흙처럼 될때까지 쪄는다. 腫塊나 疼痛部位의 크기에 따라 꺼즈를 잘라 藥을 그 위에 두께 1.5mm로 바르고 윗면에 다시 술 한잔과 따뜻한 식초를 뿌린 후 12時間 마다 한번씩 交換해 준다. 따뜻할때 患處에 붙이고 반창고로 固定시킨다. 本方의 자라머리, 炭莧菜, 水紅花籽은 清熱解毒, 消瘀破積, 軟堅散結의 效果가 있다. 臨床을 通하여 볼때 本方은 肝癌의 極烈한 痛症患者에게 있어 比較的 鎮痛作用이 좋은 것으로 보이며 使用하기에도 편리하다.

(12) 外敷香蚣散: 藥物組成은 蜈蚣 10마리, 乳香, 沒藥, 全蝎, 硼砂 30g, 陳橘皮, 蟲體, 生米殼, 紫花

7 * 水紅花子: 性寒平味苦 破血 治小兒痞塊積聚 消年甚堅積 療婦人石瘕症

地丁 各 45g, 銀朱 9g, 麝香 1.5g로 가루로 만들어 혼합해 놓는다. 필요시 메밀가루로 묽은 풀을 만든 후, 약가루를 섞어 疼痛部位의 크기만큼씩 만든다. 肝部位의 對側 皮膚에 붙이는데 하루에 한번 혹은 이틀에 한번 바꿔준다. 本方은 活血祛瘀, 通絡散結, 清熱解毒, 止痛目的으로 蜈蚣, 全蝎, 生米殼 등의 強力한 通絡之品을 重用하였고, 麝香의 辛味로 香走竄함으로 比較的 강한 滲透力을 가져 鎮痛의 效果가 比較的 좋은 것으로 보인다.

(13) 肝外 1號方: 藥物組成은 雄黃, 白礬, 靑黛, 皮硝, 乳香, 沒藥 各 60g, 血竭 30g, 龍腦香 10g을 가루로 하여 1포에 30-60g씩 나누어 使用한다. 食초와 돼지 膽汁을 반씩하여 한 포의 藥을 개어서 患處에 붙이는데 藥이 마르면 다시 食초와 膽汁으로 濕潤하게 해준다. 매일 한번, 8時間 정도 붙여 둔다. 어떤 患者에게서는 夜間에 붙이면 效果가 比較的 좋다. 本方은 涼血活血함으로 化瘀定痛하게 된다.

(14) 推氣散 加味: 薑黃 30g, 枳殼 30g, 桂心 30g, 當歸 30g, 紅藤 30g, 厚朴 30g, 蜈蚣 30g, 鬱金 30g, 柴胡 30g, 丹蔘 30g, 制南星 18g, 半夏 18g, 大黃 18g, 白芍 60g, 炙甘草 12g이다. 이 藥들을 細末하여 매 12g 매일 3회 服用한다. 痛症이 심한 사람은 매회 16g을 아울러 百參, 生薑各 6g 白朮, 茯苓, 桃仁, 各 9g을 水煎服하여 服用시킨다.

(15) 止痛抗癌丹: 三七 10g, 搔休 10g, 元胡 10g, 黃藥子^{8)*} 10g, 茅根 20g, 川烏 6g, 冰片 8g, 紫皮大蒜 100g, 麝香 適當量을 配合시킨다. 每丸의 重量은 3g이고 매회 1환씩 服用하고 매일 2회 服用시킨다.

(16) 抗癌止痛散: 三七 30g, 搔休 30g, 元胡 30g, 山慈菇 30g, 茅根 30g, 黃藥子 30g, 川烏 30g, 冰片 6g을 함께 細末하여 매회 3g씩 매일 3회 服用시킨다.

(17) 止痛丁: 蟾酥 3g, 細辛, 生川軍, 生半夏, 生川烏, 生草烏, 全蝎, 生南星, 冰片各 20g, 95% 에틸알콜 500ml를 가루내어 95% 에틸알콜에 담그고 1주일이 지난 후 疼痛部位에 바른다.

(18) 肝癌痛의 有效한 韓藥

肝癌痛에 比較的 良好한 效能을 가진 藥物은 元胡, 鬱金, 降香, 白屈菜, 兩面針, 八月札, 鐵樹葉⁹⁾, 穿山甲, 鼠婦, 雷公藤, 石見穿, 披麻草, 獨丁子, 蒲黃, 五靈脂, 沙苑子, 川棟子, 徐長卿^{10)*}, 白芍, 赤芍, 雲南百藥(三七), 露蜂房, 當歸, 川芎, 柴胡, 全蝎, 蜈蚣, 蟾酥, 藤黃^{11)*} 등이다.

8. 肝癌痛의 管理^{1-3,10,13,26)}

(1) 臥位維持: 肝癌痛에 있어서는 臥位 즉 仰臥位나 左側臥位가 제일 좋은데 이는 肝臟에서 壓力을 받는 것을 防止하기 때문이다. 疼痛이 比較的 輕微한 자는 가벼운 活動을 하여도 되지만 中·重度의 肝癌痛 患者에서는 肝位置에 突發的인 劇痛이 있고 癌結節이 破裂되어 肝細胞膜下에 出血이 發生하거나 肝破裂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絶對 寢上에서 休息을 취하여야 하며 血壓 脈搏 呼吸等 情況을 면밀히 觀察하고 必要한 處理를 하여야 한다.

(2) 肝部位 疼痛時: 患者와 家族들에게 不必要한 按摩나 肝臟을 壓迫하는 일을 삼가도록 한다.

(3) 精神治療管理: 肝癌痛患者는 大多數가 情緒 抑鬱되고 疼痛症狀 出現後에 스스로가 末期라고 認識하기 때문에 傷心을 하게 된다. 이러한 不安한 情緒는 종종 疼痛을 더욱 加重시킨다 따라서 患者를 安慰시키기 위해 暗示療法, 支持療法을 施行한다.

(4) 口腔清潔의 注意: 매일 소금물로 입을 3-4회 닦아 感染이나 口臭을 除去시킨다.

(5) 飲食調理의 重要性: 飲食은 高熱量이면서 消化가 잘되는 飲食으로 維生素 B C를 많이 供給하고 기름기 있는 飲食이나 술 또한 肝에 負擔을 줄 수 있는 飲食을 피하고 腹水가 있는 肝癌痛의 患者에 있어서는 低鹽食이나 無鹽食을 供給하여야 한다. 飲食은 抗癌 및 免疫 增強 效果가 있는 新

8 *. 黃藥子: 性味 苦平無毒 涼血降火 消癥解毒

9 *. 鐵樹葉: 氣味微甘, 微澁, 溫, 無毒, 有收斂止血, 止咳

10 *. 徐長卿: 性溫 味辛 主蟲毒

11 *. 藤黃: 性毒 而能攻毒

鮮한 菜蔬 즉 香菇, 銀耳, 薏苡仁, 大蒜, 海參 등을 많이 攝取하도록 한다.

(6) 養生: 일찍이 《內經》에서는 癌瘤의 疾病에 導引療法를 配合해야 하며 單純히 藥物療法으로는 治愈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氣功 心理治療를 包含하여 攝生에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마음을 편안히 하고 疾病에 肯定的 態度로 임한다.

III. 考 察

癌性痛症은 腫瘍의 壓迫으로 말미암아 有關 組織의 神經및 正常組織을 侵犯, 壓迫함으로 發生하는데 臨床症狀이 出現部位에 따라 比較的 複雜하다. 癌性痛症은 痛症의 物理的인 性質 뿐만 아니라 非物理的인 면의 痛症도 增加하게 되며, 疾病의 精神的인 면이 患者 및 家族들을 더욱 苦痛스럽게 한다^{1,26)}.

癌性疼痛에 대한 治療方法은 局部治療, 鎮痛劑 및 疼痛의 傳達路를 遮斷하는 方法이 있으나, 惡心 嘔吐를 비롯하여 骨髓抑制效果와 肝, 心, 腎, 肺의 損傷을 招來하고, 특히 癌細胞의 藥劑抵抗性 出現등이 問題點으로 提示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痛症을 治療하기 위하여 投與한 經口 또는 非經口性 麻藥의 效果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脊髓腔內 혹은 硬膜外로 麻藥을 投與함으로써 痛症을 治療하는 方法이 時行되고 있는 중이다^{1,2)}.

肝癌疼痛은 韓醫學에서 脾積, 癥積, 脇痛, 鼓脹, 蟲門, 積聚, 黃疸등의 範疇와 자못 關聯이 있다⁴⁵⁾. 《內經》⁶⁾에 “肝病者, 兩脇下痛引少腹, 令人善怒”라 하여 肝의 痛症 部位가 脇下라는 것을 提示하고 있다. 《難經》⁷⁾에 “脾之積, 名曰痞氣, 在胃脘, 復大如盤, 九不愈, 令人四肢不收, 發黃疸, 飲食不爲肌膚.”라 하여 肝癌의 臨床症狀과 類似한 病症을 提示하였다. 隨의 巢元方이 지은 《諸病源候論·積聚候》²⁷⁾에서는 “診得肝積 脈弦而細 兩脇下痛 邪走心下 足脛寒 脇下(痛)引小腹 男子積疝也 女子病淋也 身無膏澤 喜轉筋 爪甲枯黑 春秋 色青也” 《諸病源候論·癥黃候》²⁷⁾에서는 “氣水飲停滯積聚

成癥 因熱氣相搏 則鬱蒸不散 故脇下滿痛 而身發黃 名爲癥黃”이라 하여, 肝癌의 症狀과 病因을 敘述하였고, 唐의 《外臺秘要》²⁸⁾에 “暴癥 腹中有物 堅如石 痛如刺 晝夜啼呼 不療之 百日死”라 하여 肝癌末期에 나타나는 疼痛과 肝肥大 呼吸困難의 症狀과 類似함을 技術하고 있으며, 宋代의 《聖濟總錄》⁸⁾에 “積氣在腹中, 久不差, 堅固推之不移者, 癥也, 此由寒溫失宜, 飲食不節, 致臟腑氣虛弱, 飲食不消, 按之其狀如杯盤堅結, 久不已, 令人身瘦而腹大, 至死不消.”라 하였는데 이는 肝癌의 臨床의 症狀인 脇下腫塊, 消瘦, 納差, 腹水등의 症狀을 敘述한 것이며, 아울러 豫後가 不良하다는 것도 提示하였다. 明代 李梴의 《醫學入門》⁹⁾에서는 “脾積, 胃脘稍右曰痞氣, 言陽氣爲濕所困也, 令人黃疸倦怠, 飲食不爲肌膚.”라 하여 脾積의 位置가 胃脘部位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즉 肝의 區域이니 腫塊가 있고 黃疸, 乏力, 消瘦, 食慾減退등의 症狀이 나타나니 肝癌의 臨床症狀과 類似함을 說明하고 있다.

肝癌의 病因은 外로는 寒氣, 濕邪, 濕熱 및 虛邪 등의 邪氣가 人體에 侵襲하고 거기에 飲食不節로 因하여 脾胃가 損傷되었을때 發生하거나, 혹은 情志抑鬱로 因하여 肝氣가 鬱結되고 氣滯血瘀케 되니 內因으로는 臟腑氣虛血虧, 脾虛濕困, 氣滯血瘀 등이 있고 外因으로는 六淫邪毒入侵, 虛邪中人, 邪癥毒結등이다.

肝癌의 病理은 多樣하지만, 氣機失調, 瘀血阻滯, 痰癥積結, 濕邪內阻, 毒火結聚, 虛衰失調로 要約될 수 있다. 氣機失調는 그 自體의 誘發로서 腫塊를 形成할 수 있고, 腫塊가 일단 생기면 그 腫塊는 점차 臟腑經絡을 阻滯시켜 2차적으로 各種 氣機失調를 일으킨다. 瘀血阻滯는 瘀血로 血行不暢하게 되면 腫瘍의 生成條件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 腫瘍의 病理은 大部分 血瘀에 속한다. 痰癥積結은 痰邪가 經絡氣血을 阻滯시켜 臟腑 經絡 氣血 失調 및 疼痛을 誘發하는 것이고, 氣滯, 血瘀, 濕邪, 火毒과 相互 結合하여 痰氣交阻, 痰瘀互結, 痰濕夢閉, 痰火上逆 等症을 惹起시킨다. 濕邪內阻는 外로는 氣候燥濕으로 말미암고, 內로는 脾失健運이 原

因이다. 毒火結聚는 毒火로 臟腑經絡氣血을 損傷시키고 氣血痰濁과 相合하여 癌瘤를 만들고 또한 毒火도 직접 絡을 傷하여 極烈한 疼痛을 惹起시킨다. 虛衰失調는 正氣가 邪氣를 이기지 못하므로 邪氣가 留滯하여 不去하므로 오랜 時間이 지나면 癌瘤가 된다.

肝癌痛의 特徵은 癌腫이 進行하면 肝部位에 持續的인 疼痛이 있고, 腫瘤가 肝右葉上方에 있으면 橫膈膜을 侵犯하여 疼痛이 右肩이나 右背로 放散되며, 腫瘤가 右葉後方에 있으면 腰部疼痛을 일으킨다. 肝癌疼痛의 性質은 多樣하여 刺痛 脹痛, 鈍痛과 夜間에 더욱 심해져 一般 止痛劑로는 緩解가 어렵다.

肝癌疼痛의 鑑別診斷은 正氣와 邪氣를 辨別하여 治療의 攻補先後와 主次를 決定해야 한다. 이는 肝癌疼痛의 特徵이 正虛邪實이므로 正氣虛는 肝癌疼痛 發生의 主要因으로서 先攻後補, 先補後攻, 攻補兼施를 優先的으로 辨別하여 決定해야 한다.

肝癌疼痛은 肝氣鬱結, 瘀血內阻, 濕瘀互結, 肝腎陰虛로 辨證하여, 肝氣鬱結에는 疏肝解鬱, 利氣止痛하는 柴胡疏肝散加味를 使用하고, 瘀血內阻에는 活血化瘀, 消積止痛하는 膈下逐瘀湯을 使用하고, 濕瘀互結에는 利濕化瘀, 散結止痛하는 茵陳蒿湯合失笑散加味를 使用하고, 肝腎陰虛 濕瘀互結에는 滋腎養肝, 利濕化瘀, 散結止痛하는 二至丸 및 青蒿鱉甲湯加減을 使用한다.

肝癌疼痛의 治療로는 主血로 肝炎點, 足三里를 配穴은 陽陵泉, 期門, 章門, 三陰交를 刺鍼하는 針刺止痛法과 穴位敷藥止痛法, 韓藥敷臍止痛法, 肝區塗擦止痛法, 韓藥外敷肝區止痛法, 鼠婦와 雷公藤仙鶴草를 理容하는 方法이 提示되고 있다.

肝癌疼痛의 處方은 각 辨證別로 나뉘는데 瘀血內阻하고 氣血兩虛인 경우에는 活血化瘀 理氣止痛하는 化征回生丹을, 瘀血內阻인 경우에 活血化瘀 行氣止痛하는 一粒止痛丸을, 痰結互結에 陰虛內熱

에 치우친 경우에는 活血消痰 散結止痛하는 人蔘鱉甲煎丸을, 瘀血內阻에 血虛內熱에는 破血消征 逐瘀通經 養血清熱하는 大黃蟻蟲丸을, 氣滯血瘀에 行氣活血 散結止痛하는 復方紫葇衝劑를, 氣滯血瘀에는 復方紫葇衝劑를, 涼血活血하여 化瘀定痛하는 데는 肝外 1號方을 使用한다.

肝癌疼痛 患者의 管理는 處方이나 諸般 治療方法 못지않게 重要的 것으로 仰臥位나 左側臥位를 維持하여 肝臟에서 壓力을 받는 것을 防止하고, 肝部位 疼痛時에 患者와 家族들에게 不必要한 按摩나 肝臟을 壓迫하는 일을 삼가도록 하며, 또한 不安한 情緒로 종종 疼痛을 더욱 加重시키므로, 患者를 安慰시키는 것도 重要的 事이다. 口腔清潔도 注意를 하여야 하고, 飲食은 高熱量이면서 消化가 잘되는 飲食으로 비타민 B C를 많이 供給하고 기름기있는 飲食이나 술 또한 肝에 負擔을 줄 수 있는 飲食을 피하고 腹水가 있는 肝癌痛의 患者에 있어서는 低鹽食이나 無鹽食을 供給하고, 또 마음을 편안히 하고 疾病에 肯定的 態度로 임하는 事이다.

IV. 結 論

肝癌疼痛에 대한 文獻調査를 통하여 考察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肝癌疼痛의 病因은 內因으로는 臟腑氣虛血虧, 脾虛濕困, 氣滯血瘀등이고, 外因으로는 六淫邪毒入侵, 虛邪中人, 邪凝毒結등이다.
2. 肝癌疼痛의 病理는 經絡臟腑中の 氣血運行 障礙로 볼 수 있으며, 虛痛은 虛弱한 상태에서 邪氣가 侵入하여 脈寒, 血虛脈泣, 血泣脈急, 氣虛등을 招來하여 脈不通하면 痛症이 發生되는 것이고, 實痛은 邪氣가 體內的 眞氣와 相搏하여 鬱而發熱하면 血氣亂하여 脈滿, 脈充大 및 脈堅大등을 招來하면 痛症이 惹起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肝癌疼痛은 肝氣鬱結, 瘀血內阻, 濕瘀互結, 肝腎陰虛로 辨證하여 治療한다.

4. 肝癌疼痛의 治法은 通則不痛의 治療原則下에 虛實에 따라 正治함으로서 不通을 通暢하게 함이 타당하다.

5. 肝癌疼痛의 處方은 化征回生丹, 一粒止痛丸, 人蔘鱉甲煎丸, 大黃蟻蟲丸, 復方紫蔘衝劑, 外敷癌痛散, 蟾蜍止痛方, 肝癌止痛方, 肝外 1號方등을 使用한다.

6. 肝癌疼痛 患者의 管理로 體位維持, 精神治療, 口腔清潔, 飲食調理, 養生등이 必要하다.

參考文獻

1. 包興才: 惡性腫瘤并發症, 人民軍醫出版社, 北京, pp. 134-137, 140-143, 1996.
2. 許德甫 등: 中西醫結合治療常見腫瘤的良方妙法,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 58-59, p. 69, pp. 74-76, 1996.
3. 郁仁存 외: 癌症治療의 臨床用藥經驗及體驗, 中西醫結合雜誌(9), pp. 558-560, 1988.
4. 金秉雲 외: 肝系內科學, 東洋醫學研究院出版社, pp. 274-275, p. 279, 1989.
5. 周岱翰: 蓮花片治22例肝癌生存1年以上臨床分析, 新中醫(6), p. 21, 1985.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 145, 1981.
7. 王叔和: 圖註難經脈訣, 大孚書局, 台南, p. 216, 1977.
8. 趙佶: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 1297, 1987.
9. 李挺: 醫學入門, 翰成社, 서울, p. 389, 1984.
10. 陳瑞東: 對癌症有效的中藥方劑,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pp. 72-74, 1992.
11. 李岩: 腫瘤臨證備要, 啓業書局有限公司, 台北, pp. 70-71, p. 157, 1985.
12. 鄭玉玲: 實用中西醫腫瘤內科治療手冊,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p. 110, 1994.
13. 鄭玉玲: 癌痛的中西醫最新療法,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pp. 155-168, 1993.
14. 洪元植: 現代中共의 癌治療, 英文社, 서울, p. 193, 1984.
15.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下), 人民衛生出版

社, pp. 237-238, p. 246, 1982.

16. 蘇誠煉: 中醫痛症大成, 北京, 福建科學技術出版社, pp. 229-242, 352-353, 445-446, 1983.
17. 吳謙: 醫宗金鑑(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176, 1982.
18. 王清任: 醫林改錯,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p. 37, 1975.
19. 李聰甫 외: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之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36, 1983.
20.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857, 1982.
21. 고려의학 출판부: 간·담도질환, 서울, 고려의학, p. 500, 1989.
22. 樊中州: 腫瘤疾病千首妙方, 北京, 中國人口出版社, p. 1993.
23. 郁仁存: 中醫腫瘤學, 中國, 木鐸出版社, pp. 24-29, 62-63, 1983.
24. 葉銘洪: 七〇〇治癌中藥及處方, 香港, 萬葉出版社, p. 51, 176,
25. 常敏毅: 抗癌本草,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p. 9, 13, 65, 74, 113, 171, 224, 247, 263, 312, 336, 1987.
26. 趙景芳: 精神因素與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 93-94, 98, 1991.
27.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393, 583, 1983.
28. 王燾: 外臺秘要, 서울, 成輔社, p. 324, 1975.